

인쇄술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끈 문화사적 대사건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

곽차섭 | 부산대 사학과 교수

활판인쇄술은 유럽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근대 텍스트 비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비판적 언어학을 널리 전파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의 확산 등 다양한 관념들을 널리 확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를 통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를 추동한 힘이 됐다.



파리에 세워진 구텐베르크 인쇄소를 그린 1522년 목판화.

서양에서 금속활판인쇄술(이하 활판인쇄술)이 최초로 완성된 것은 아마도 1450년경의 독일 마인츠에서였을 것이다. 누가 그것을 '발명' 했는가? 교과서적인 대답은 요한네스 구텐베르크(1395~1468)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당시의 기록에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업자였던 요한 푸스트(1400~1465)와 뒤에 푸스트의 사위가 된 페터 쇠퍼(1425~1502)의 이름도 들어 있다. 게다가 이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놓고 구텐베르크와 푸스트가 소송을 벌였던 사건까지 있고 보면, 과연 그 '발명자'는 누구였던가가 더욱의 아해진다(이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푸스트였다).

인쇄술은 역사적 과정이 쌓이면서 일어난 사회적 산물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서양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책들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들이 마인츠에서 인쇄됐다는 점이다. 구텐베르크가 찍었다고 알려진 있는 이른바 42행 라틴어 《성서》가 나온 것은 1455년이었고, 2년 뒤에는 푸스트와 쇠퍼의 《시편》이 간행됐다. 관련사료가 매우 적고 기록의 신빙성도 불확실하다는 사실은 제쳐놓고라도, 활판인쇄술과 같은 복합적인 기술은 어떤 특정인의 '발명' 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여러 과정들이 겹치고 쌓이면서 일어난 사회적 산물이라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하다.

새로운 활판인쇄술은 종이, 유성잉크, 압착인쇄기, 금속활자의 네 가지가 어울려 완성된 것이다. 중국에 기원을 둔 종이는 8세기 경 이슬람으로 전해지고 12세기 무렵에는 에스파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3, 14세기를 거치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종이를 얻으려면, 먼저 물레방아를 이용해 낱마를 잘게 부수 필포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는 체로 받치고 압착기로 물기를 뺀 뒤, 도사(陶砂)로 윤기를 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15세기의 하층민 출신 시인이었던 한스 작스(1494~1576)의 시에 잘 묘사되고 있다.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알다시피 양피지나 송아지피지를 썼다. 부피가 큰 성서의 경우, 책 한 권을 만드는 데 대략 2백장에서 3백장 정도의 피지가 소모됐고, 그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값이 저렴한 종이의 출현은 활판인쇄술을 상용화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유성잉크는 15세기 초에 플랑드르 지방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유성물감에서 빌려왔다. 이는 아마씨 기름으로 된 와니스에 안료를 첨가한 것이었다. 인쇄기는 젖은 종이에서 물기를 짜내는 압착기가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원용할 수 있었다.

지식욕구와 수요계층 때문에 인쇄술 급속히 확산돼

하지만 활판인쇄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속활자였다. 1250년에서 1350년 사이, 역시 중국에서 들어온 목판인쇄술로 이미 14세기 말부터 놀이 카드나 성화(聖畵)류 등이 제작되고 있었으나, 좀더 많은 책을 단시간 내에 찍어내기 위해서는 마모되지 않고 재배열이 가능한 금속활자가 필요했다. 아마도 금속공예나 메달제작에 사용했던 정밀한 야금술이 주형(鑄型)을 이용한 금속활자의 주조에 활용됐을 것이다. 구텐베르크는 원래 금세공사였다. 추측컨대, 15세기 전반기 동안 유럽 곳곳에서는 숨쉴 만한 장인들이 더 나은 품질의 금속활자와 잉크와 인쇄기 등을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실험을 거듭하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발명' 이라 부르고 싶어하는 현상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바탕으로 당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

에, 때로는 독립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결국 이 공정을 최초로 완성한 것은 마인츠의 구텐베르크, 푸스트, 쇠퍼였고 이후 그것은 스트라스부르크(1458), 콜로뉴(1465) 등 독일 지역을 필두로 프랑스와 네덜란드(1470), 에스파냐, 영국, 폴란드(1474~1476) 등지로 퍼져나갔고, 문화의 중심지 이탈리아에는 1467년 로마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도입됐다.

1500년 이전에 인쇄된 책(인큐나블라)의 추정 부수는 약 6백만권, 판본 수는 약 4만개를 헤아렸다(학자들 가운데는 고대부터 활판인쇄술의 도래 전까지 유럽에서 만들어진 필사본의 수가 이보다 적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유실본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 수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대량인쇄와 공급으로 근대 텍스트 비판의 토대 마련해

50년이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처럼 활판인쇄술이 유럽 각지로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무엇보다도 책과 지식에 대한 욕구가 팽배했으며 또 그것을 살 수 있는 잠재적 수요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읍이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일터가 위치한 상인, 상급 장인, 법률가, 정부 관리, 의사, 교사 등 이른바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공 업무를 수행키 위해, 혹은 문화적 교양과 세련을 위해, 종교서적이든 세속적 지식을 담은 것이든, 라틴어판이든 속어판이든, 고전 작가든 대중적 오락물이든 가리지 않고 실로 거의 모든 종류의 책을 사들였던 것이다. 고려가 마인츠의 인쇄업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급속활자를 '발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도 활판인쇄술의 영향이 미미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런 수요층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활판인쇄술의 출현은 유럽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가장 특징할 만한 것은 역시 학문의 발전에 미친 영향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서적을 일시에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근대 텍스트 비판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종래의 필사본은 숫자도 적을 뿐더러 그 내용도 정확하지 않아 계속적이고 누적적인 텍스트 수정이 이뤄질 수 없었다. 인쇄술 덕분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자들도 어떤 책의 어떤 특정 구절을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고, 서로 다른 판본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수정과 비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의 학자들은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어떤 책의 비판본이라는 것을 갖게 됐다. 이는 학문의 발전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띤다. 왜냐하면 이로써 학문의 표준화가 가능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물을 평가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16세기 초 태양중심설을 입론했으나, 혼자서 이 문제를 씨름하다가 1543년에 이르러서야 그 결과를 책으로

간행했다. 이후, 그의 주장은 많은 학자들 간에 대화의 주제가 됐고, 그 만큼 해결책도 더 빨리 도출될 수 있었다. 인쇄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혼자 생각이지만, 조선시대에 텍스트 내용에 대한 해석논쟁은 있었어도 텍스트 자체에 대한 비판논쟁이 미약했던 것은 이런 대량 인쇄 문화가 결여된 데에 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인쇄혁명이 없었으면 에라스무스나 루터도 없었다

활판인쇄술은 학문의 비판적 축적과 아울러 다양한 관념들을 널리 확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만일 인쇄술이 없었다면 에라스무스 같은 문인의 영향력이 그렇게도 급속히 전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었을까? 이는 루터의 경우에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1517년에서 1526년 사이에만, 약 2천개에 달하는 루터의 저작과 설교집 판본들이 간행됐다. 우리는 여기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공격하고 미사의식을 풍자하며 수도원의 세속화를 요구하고 농노제가 그리스도교인의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대중적 팸플릿, 호의물, 만화류 등속을 더해야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활판인쇄술을 매개로 사회의 모든 계층 깊숙이 전달됐던 것이다. 특히 이 기간은, 루터가 95개조를 내건 뒤 교황 및 황제와 충돌하면서 결국 파문까지 당한 민감한 시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정하건대, 만일 활판인쇄술이 없었다면 루터가 있었겠는가? 그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급속히 확산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독일의 제후들이 계속해서 그를 옹호해줬겠는가?

활판인쇄술의 출현은 르네상스의 비판적 언어학을 널리 전파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제 학자간의 국제적 협력으로 학문의 표준화가 가능하게 됐고 새로운 관념의 광범위한 공유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됐다. 대규모의 독서계층이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이전에는 극소수의 학자나 성직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학문적 논제나 종교적 교의가 동일한 내용을 담은 대량의 책들을 통해 훨씬 더 다양한 계층과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활판인쇄술은 과학기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 근대의 기점으로 잡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강력한 추동력이었다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 더욱이 장기적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급속활판인쇄술의 출현은 문자의 사용과 컴퓨터의 발명에 필적하는 일대 문화사적 대사건이라고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것이다. ■

박차섭 교수는 서강대에서 '바로크 시대 마키아벨리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방문 학자를 지냈으며, 현재 부산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마키아벨리즘과 근대국가의 이념>을 펴냈고, <미시사란 무엇인가> <마키아벨리 평전>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